



K-IFRS 제1109호 금융상품

2017. 4.26.

KAI

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.

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.

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-making process.

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.

We trust,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.

이 내용은 강의를 목적으로 강사 개인의 식견과 견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, 한국회계기준원 또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CONTENTS

Korea Accounting Institute

- Ⅰ 개요
- Ⅱ 시행일, 경과규정
- Ⅲ 분류, 측정
- Ⅳ 손상
- Ⅴ 위험회피회계

I

Korea Accounting
Institute

개 요



IFRS 9 제정 배경, 구성

IFRS 9 제정 배경

- IAS 39의 복잡성과 불명확성, 이해/해석/적용이 어려움
-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손상규정의 비일관성
-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하지 못 함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응성 문제 해결 필요(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)
- 단순하면서 글로벌한 단일 회계기준이 필요
- 미국회계기준과의 합치요구

IFRS 9 구성

- 총 7개 Chapter로 구성
 - ① 목적
 - ② 적용범위
 - ③ 인식 및 제거
 - ④ 분류
 - ⑤ 측정
 - ⑥ 위험회피회계
 - ⑦ 시행일 및 경과규정

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

분류 및 측정

논리적, 단일의 분류방식
by 현금흐름특성, 사업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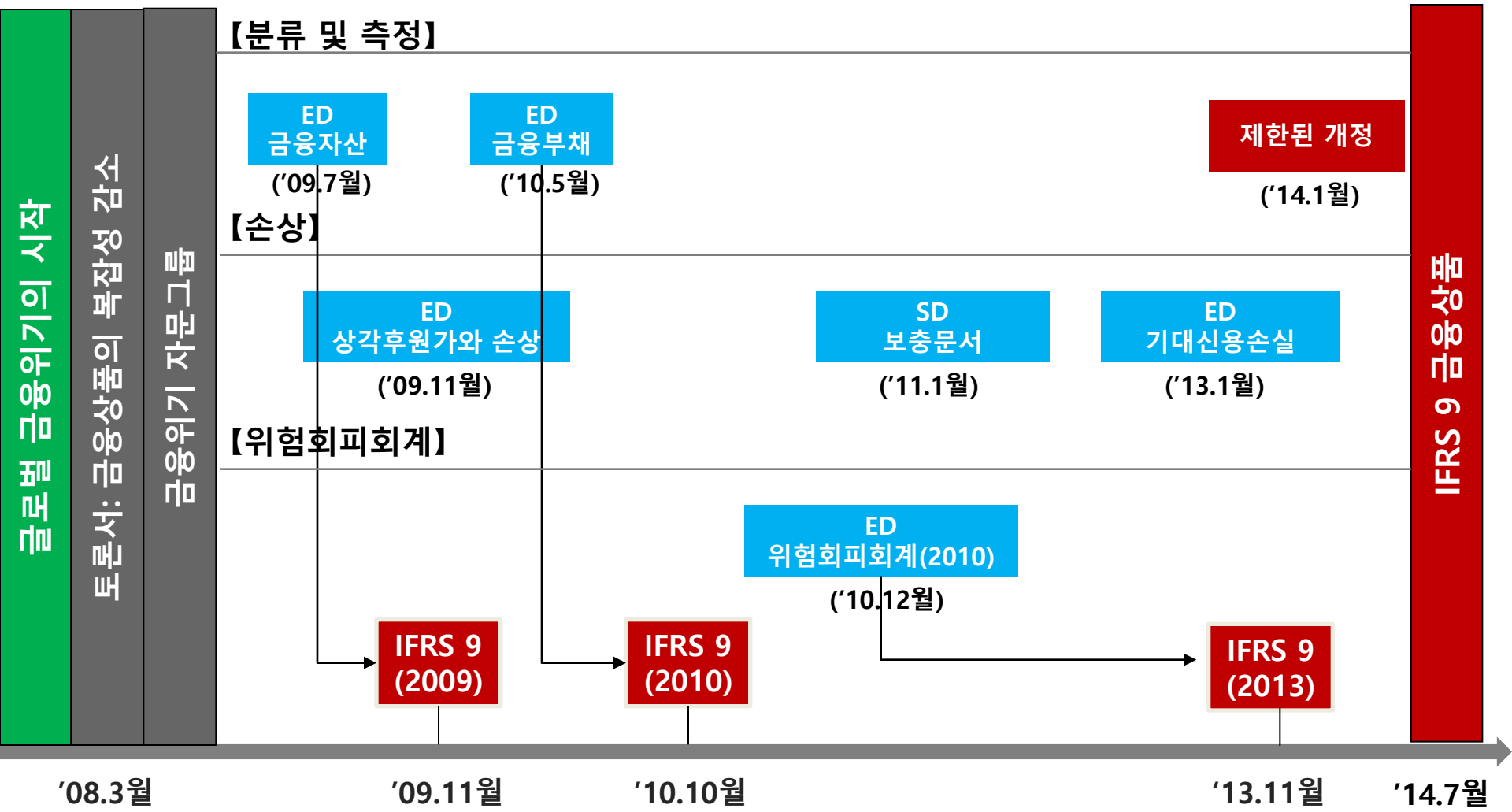
손상

미래 전망적(forward-looking)
'기대신용손실모형'

위험회피회계

위험관리방식과
일관된 회계처리

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광범위한 재작업

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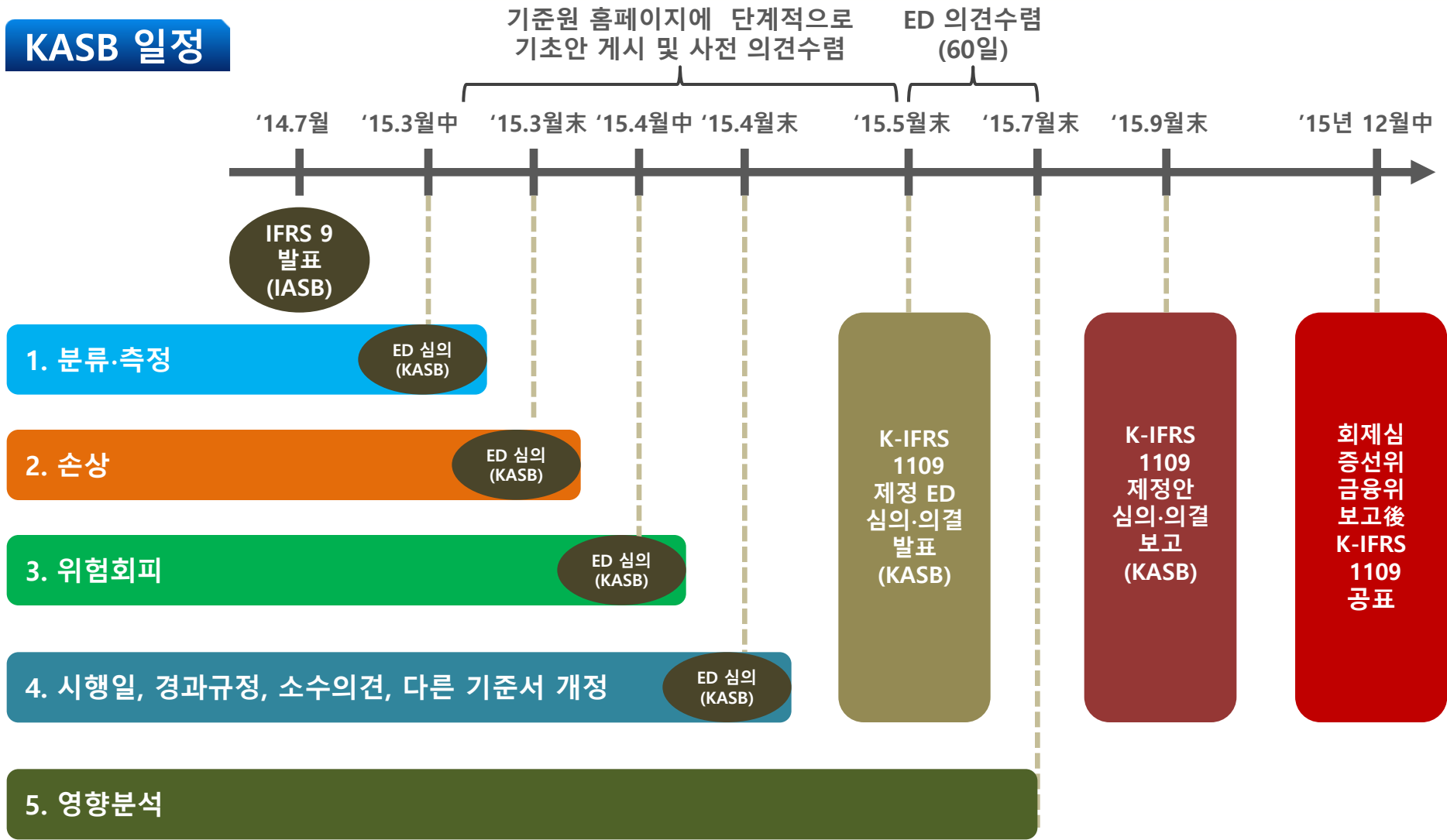
Korea Accounting
Institute

시행일, 경과규정



K-IFRS 제1109호 ‘금융상품’ 제정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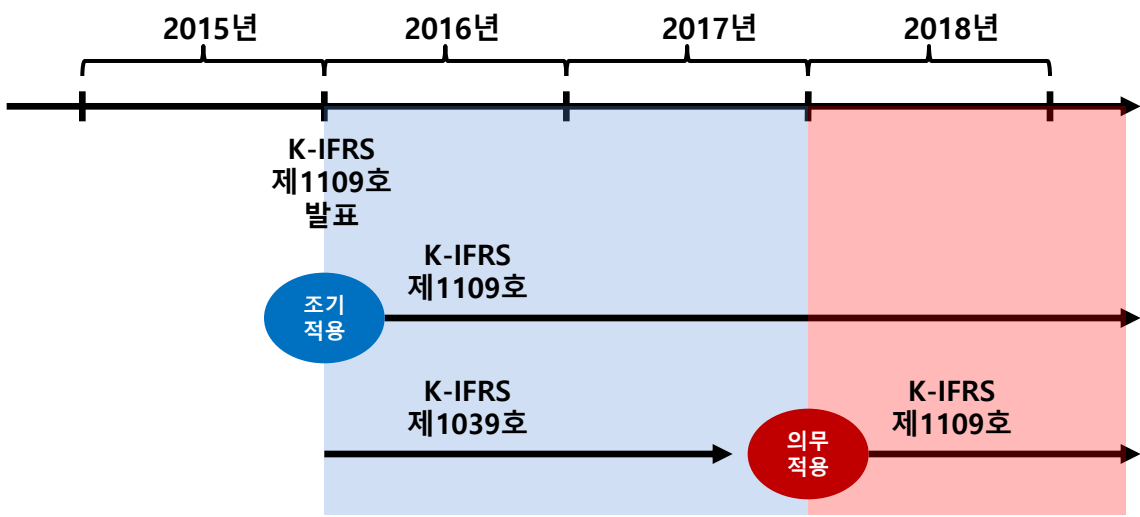
KASB 일정



시행일, 경과규정

시행일

- '18년부터 의무적용, 조기적용 허용



경과규정

- 최초적용 시 분류, 측정, 손상에 대한 비교표시 재무제표 작성 면제
- 대신 K-IFRS 제1039호에서 K-IFRS 제1109호로 전환에 대한 주식공시(reconciliation) 요구
- 소급적용 원칙
- 소급적용의 예외
 - 사업모형의 평가, SPPI 평가, 공정가치선택권(FVO), 지분상품의 FVOCI 지정, 유효이자율법
 - 시장성 없는 지분상품,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평가('낮은 신용위험', 30일 연체기준)

III

Korea Accounting
Institute

분류, 측정



금융상품의 분류, 측정에 대한 주요 사항

채무상품과 지분상품 구분의 중요성 증가

■ 채무상품

- ① 기타포괄손익선택권(FVOCI) 적용 불가능
- ② 보유기간 동안 이자수익·이자비용 인식
- ③ 사업모형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미충족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 이슈 존재

■ 지분상품

- ① 상각후원가(AC)로 분류될 수 없음
- ② 보유기간 동안 배당수익 등 인식
- ③ 손상 대상에서 제외
- ④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는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는 예외사항 적용 가능

■ 사례

신종자본증권	풋가능금융상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은 전체로서 분류하고 측정투자자 입장에서 발행자의 만기연장옵션, 이자지급정지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, 신종자본증권이 채무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발행자는 제1032호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 가능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*이 발행자의 자본으로 분류되지만,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봄(제1109호 BC5.21)

* 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

금융상품의 분류, 측정에 대한 주요 사항_계속

금융자산의 분류·측정 기준

-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·측정
 - ①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(원금과 이자로만 구성)
 - ② 사업모형(금융상품의 보유목적)

금융자산의 세 가지 분류·측정 범주

- ① 상각후원가(AC)
- ②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(FVOCI)
- ③ 당기손익-공정가치(FVPL)

금융자산의 재분류

-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만 가능

단일분류방식

- IAS 39의 복합금융상품의 분리에 따른 복잡성 해소
- IAS 39의 다양한 손상모형으로 인한 복잡성 해소

금융상품의 분류, 측정에 대한 주요 사항_계속

FVOCI 측정 범주(IFRS 9)과 매도가능금융자산(IAS 39) 비교

▪ 매도가능금융자산(IAS 39)

- ① 다른 금융자산의 분류가 끝나고 난 후의 **잔여개념(residual classification)**
- ② 선택에 **제한이 없음(unrestricted election)**
- ③ 금융상품을 **매매목적으로 보유**한다면 **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**해야 함

▪ FVOCI 측정 범주(IFRS 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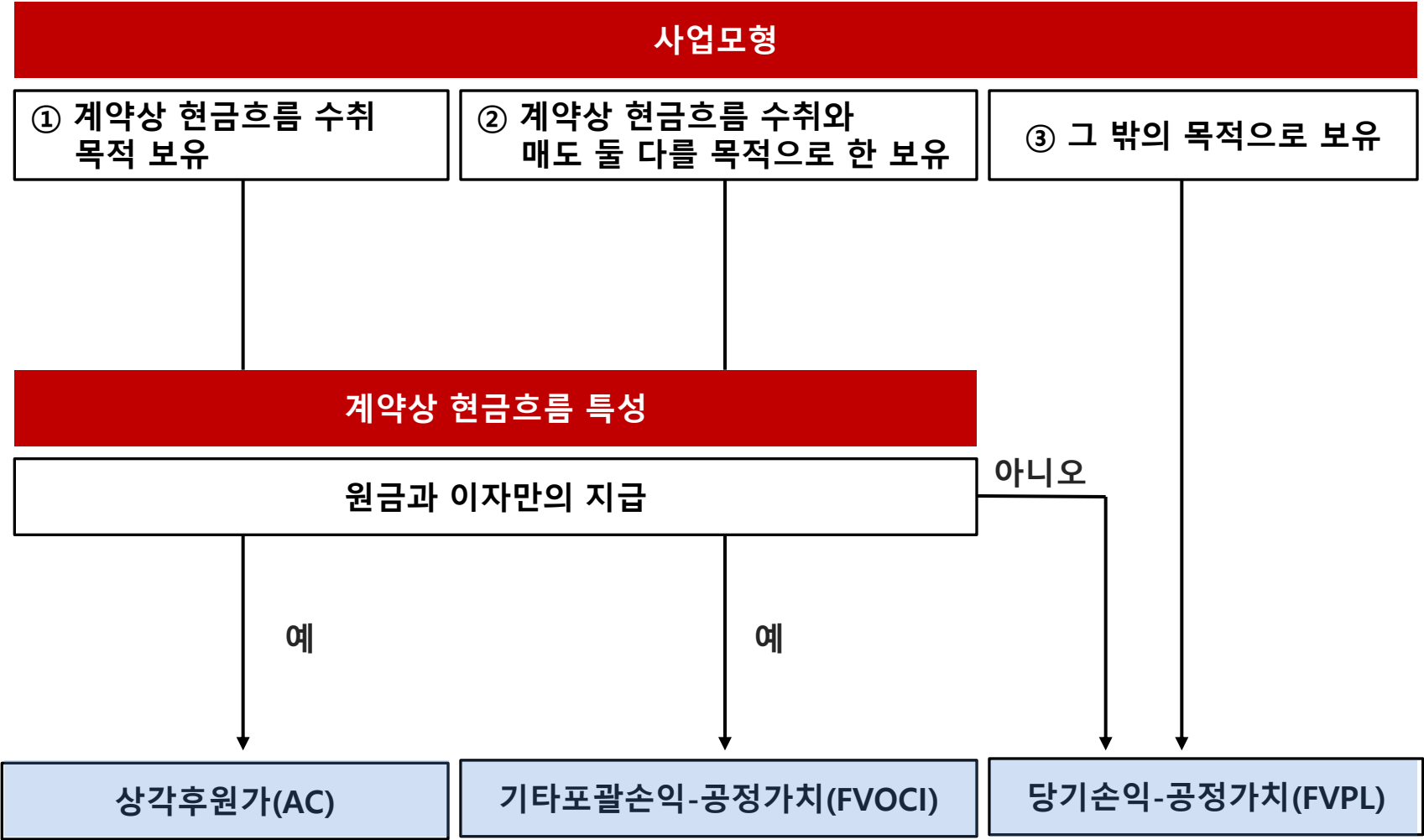
- ① 금융자산 관리방식, 성과 보고방식에 근거한 **사업모형을 반영**
- ② **잔여개념 (residual classification)** 이거나 선택사항이 아님
- ③ **AC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손상 모형이 적용**
- ④ **비교적 단순한 채무상품들만이 FVOCI 측정 금융자산에** 해당할 것임
- ⑤ 다만, (실무적으로)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**활발히 매매할 목적** 또는 **회계불일치를 해소**하기 위해 공정가치선택권(FVO)을 적용할 것이므로, FVOCI 측정 범주도 잔여개념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*됨

* AC측정 범주로 분류하거나 FVPL 측정 범주로의 사업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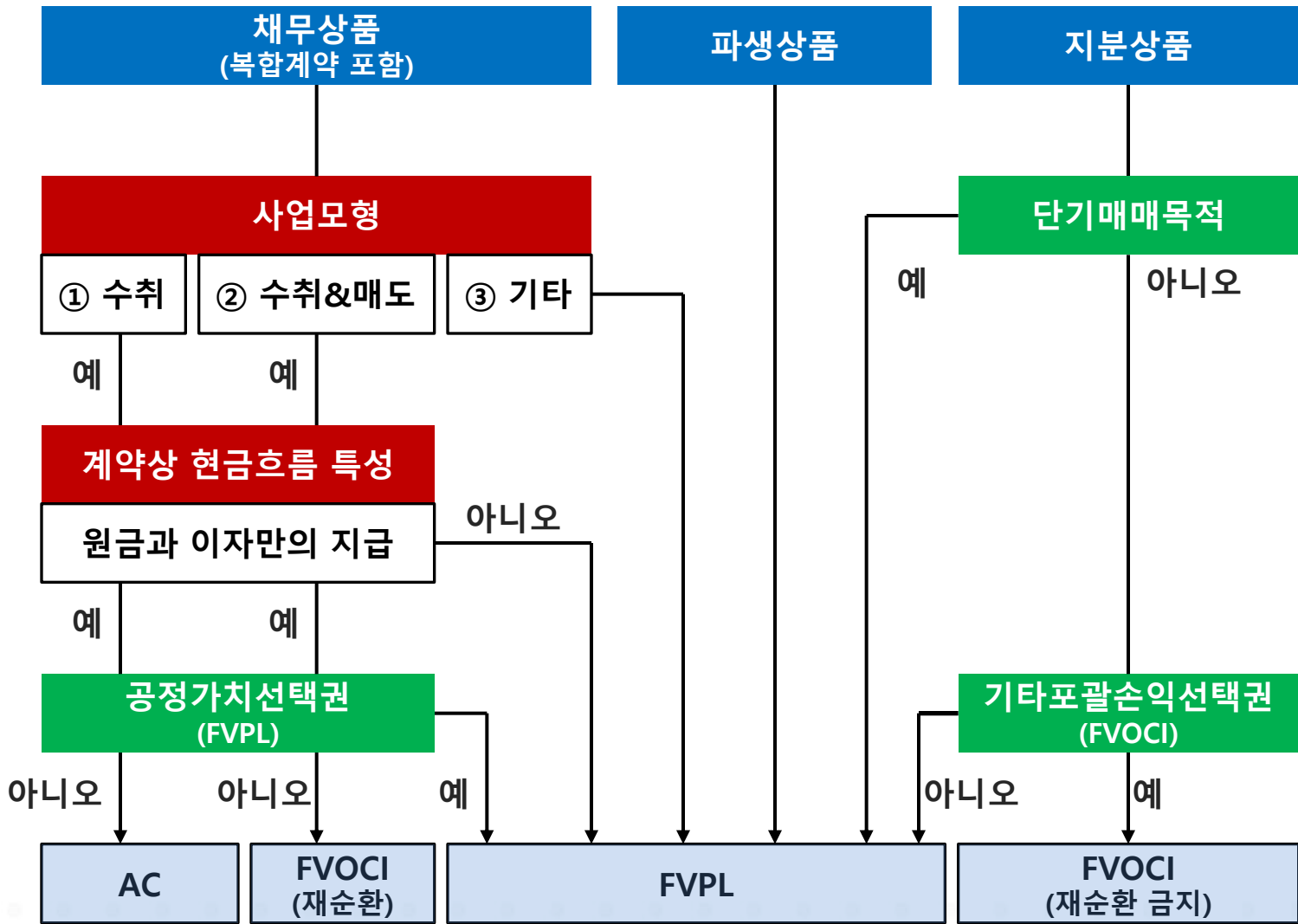
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(own credit risk)

-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, **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**

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Flow chart



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Flow chart_계속



금융상품의 분류, 측정 비교: K-IFRS 제1039호 vs K-IFRS 제1109호

K-IFRS 제1039호/IAS 39			K-IFRS 제1109호/IFRS 9	
			분류·측정	
금융 자산	분류	측정		
	대여금 및 수취채권	AC		
	만기보유금융자산 (채무상품)		AC	
	매도가능금융자산 (채무상품)	FVOCI (재순환)	FVOCI(채무상품)_재순환	
	매도가능금융자산 (지분상품)		FVPL(지분상품)* *FVOCI 선택가능: OCI 재순환 금지	
	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	FVPL		
	공정가치선택권		FVPL_공정가치선택권(FVO) 포함	
금융 부채	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	FVPL		
	공정가치선택권		FVPL_공정가치선택권(FVO)* 포함 *FVO: 자기신용위험→OCI, 재순환 금지	
	기타	AC	AC	

새로운
분류기준
①사업모형
②계약상CF

→

동일한
분류기준

→

사업모형

- 주장이 아닌 **실질평가(factual assessment)**
- 기업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**관측가능**
- 개별금융상품 수준(X), **금융상품이 관리되는 방식을 반영한 보다 높은 집단의 수준(O)**
- 사업모형 평가와 관련된 증거의 예시
 - 사업모형을 평가하는 방식
 - 사업모형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
 - 그 사업의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방식

①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(→AC)

-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로 가치창출
 - 빈번하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아니한 매도
 - 사업모형 판단 시 매매 빈도나 매매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음
 - 형식은 매도지만 실질적인 원리금을 회수인 경우* 수취 목적 사업모형으로 볼 수 있음
- * 예: 금융자산의 만기가 가까운 시점에 매도하고 매도로 수취하는 대가가 남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액과 거의 같다면 해당 매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목적과 일관될 수 있음
-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(SPPI)를 충족하는 경우, **상각후원가(AC)**로 측정

② 수취·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(→FVOCI)

-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로 가치창출(둘 다 필수적)
- 유동성 needs, 자산-부채관리(ALM)
-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(SPPI)를 충족하는 경우,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(FVOCI)로 측정

③ 기타 사업모형(→FVPL)

- 매도를 통한 현금흐름의 실현을 목적으로 자산을 관리
- 적극적인 매입과 매도활동
- 당기손익-공정가치(FVPL)로 측정
- (예시) 자산유동화(팩토링) 목적 대출의 사업모형 분류
 -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더라도 그러한 모든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음
 -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통해 공정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, 적극적인 매입 또는 매도를 한다면,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부수적 요소임
 - 따라서 자산유동화의 목적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실현 목적인지,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것인지 계약 조건과 경영진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함

계약상 현금흐름 특성

계약상 현금흐름 특성

-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(SPPI*)

* SPPI: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

이자의 구성요소

- ① 화폐의 시간가치
- ②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
- ③ 기본적인 대여(basic lending)에 따른 위험과 원가(예: 유동성 위험)
- ④ 일정기간 보유에 따른 서비스원가, 관리원가
- ⑤ 이윤

계약상 현금흐름 특성(SPPI)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

- 주가나 일반상품 가격의 변동에 노출된 계약
- 옵션, 선도계약, 스왑계약

화폐의 시간가치

- 시간의 경과를 반영하는 이자요소
- 일부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

변경된 화폐의 시간가치

- 변경된(modified) 화폐의 시간가치: 이자율과 시간의 경과와의 관계가 불완전함
 - (예) 매월 1년 이자율로 재설정, 특정 장·단기 이자율의 평균치로 주기적으로 재설정
- 변경된 화폐의 시간가치가 SPPI를 충족하는지를 평가

변경된 화폐의 시간가치의
현금흐름

VS
↓

벤치마크 현금흐름

- 변경된 화폐의 시간가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소가 동일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

- 현금흐름의 차이가 유의적이면, SPPI를 충족하지 못함→FVPL

규제이자율

- 이자율의 규제(regulated rate)를 받는 금융상품
- 다음의 경우, 상각후원가(AC) 측정이 가능
 - 규제이자율이 대체로(broadly) 시간의 경과와 일관된 대가
 - 기본적인 대여(basic lending)활동과 상충되는 위험이나 변동성에 대한 노출이 없음

계약상 현금흐름 특성_계속

변동이자율

- 이자율이 변동되더라도 **이자**가 5가지 요소로 구성된 경우에는 **SPPI를 충족**할 수 있음

중도상환특성

중도상환금액이 **실질적으로 미지급 원리금**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**SPPI를 충족**할 수 있음

- 금융자산을 **유의적으로 할증**하거나 **할인**하여 취득한 경우, **액면(at par)**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**SPPI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**
- 이러한 경우 중도상환할 때 대여자는 **기본대여계약으로부터의 수익**이 아닌 **차익(차손)**을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임
- 그러나 금융자산 최초 인식 시, 중도상환 특성의 공정가치가 **유의적이지 않은 경우** (insignificant) **SPPI를 충족**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음 (B4.1.11(2) 및 B4.1.12)

계약상 현금흐름 특성_계속

만기연장특성

- 만기연장기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**실질적으로 미지급 원리금**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**SPPI를 충족**할 수 있음

후순위 채권

- **채무자가 파산**하는 경우에도 **미지급 원리금에 대한 계약상 권리**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**SPPI를 충족**할 수 있음
- (예)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때, 담보를 보유한 대여자가 일반 매출채권 보유자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지만, 채무자의 파산이 일반 매출채권 보유자의 미지급된 원금 등에 대한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(B4.1.19)

복합금융상품

- 금융상품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더라도, **SPPI 테스트는 전체 금융자산에 적용**
- (제1039호와 달리) **주계약인 금융자산**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내재파생상품을 **별도로 고려하지 않음**

수익증권(펀드)의 분류 및 SPPI 기준 충족 여부

- 기업 X는 **편입자산이 채무증권(국공채 등)으로만 구성된** 수익증권 A(채권형 수익증권)를 취득
- 기업X는 **현행 금융상품 기준서(제1039호)에서 이러한 채권형 수익증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,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(OCI)으로 인식**

채권형 수익증권의 주요 특징	
➢ 편입자산을 국공채 등 채무증권 100%로 구성	
➢ 수익증권은 신탁 보수 및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,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와 손익을 확정 후 해당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을 분배금으로 지급	
➢ 결산시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받음	
- 수익증권 A는 **채무상품에 해당**
 - 수익증권 A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**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**, 채무상품에 해당
- 수익증권의 현금흐름(신탁보수·제비용 지급, 이익 분배 등) **기본대여계약(basic lending arrangement)의 현금흐름과 일관되지 않으므로 SPPI 기준을 미충족**
 -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와 손익 확정 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**이익 분배**를 하며, **교체매매, 재투자**가 발생하기 때문에,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(IFRS 9 문단 4.1.2(2))과 일관되지 않음
 - 현금흐름 특성은 **지급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나타내는지**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은 원금과 이자 현금흐름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

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구분 및 적용

- 은행 X는 부동산 관리·운영을 하는 SPE A에 대한 대출을 보유

SPE A

기초 자산

개발 프로젝트 등

부채 및 자본

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/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

자본

기업 X

자산

대출 Y

- SPE A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관리·운영을 목적으로 설립
- SPE A는 개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관계없이 고정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가짐
- SPE A는 예금,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
-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X는 SPE A의 모든 소유물(또는 청산잔액)에 상환청구권을 행사 가능

- 은행 X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라면, 기초 상품집합(기초자산)이 금융자산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(제1109호 문단 B4.1.20~ B4.1.26)을 적용
 - 만약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, 해당 금융자산의 SPPI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1109호의 다른 규정(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규정 포함)을 적용
- 둘 이상의 SPE를 기초로 한 투자에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초 상품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수행하는 세밀한 검토(look-through)의 범위
 -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기초 상품집합이 또 다른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경우, 제1109호 문단 B4.1.21과 B4.1.22에 따라 해당 기초 상품집합까지 세밀한 검토를 수행
 - 다만 기초 상품집합이 또 다른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면, 투자자는 해당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(제1109호 문단 B4.1.21~B4.1.26) 외의 SPPI 규정을 적용

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구분 및 적용_계속

- SPC에 대한 대출이 **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**인지, **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**인지의 구분 기준
 - 전형적인 **워터폴 구조**에서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이 (상품의) 보유자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는 신용위험의 집중에 영향을 미침
- **워터폴 구조와 일반 채권자 우선순위의 주요 특징**(출처: '09.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 회의자료)

구분	워터폴 구조(waterfall structure)	일반 채권자 우선순위 (creditor ranking)
손실 배분	➤ 발행자의 손실을 각각의 트랑슈에 직접 배분	➤ 발행자의 자산과 청산잔액(liquidation proceed)을 채권자에게 배분
우선순위 방식	➤ 우선순위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만 영향을 미침	➤ 우선순위는 계약상뿐만 아니라 비계약상 권리·의무에도 영향을 미침
지급액 변동	➤ 손실 배분으로 인한 지급액의 변동은 발행자의 디폴트나 파산(bankruptcy)을 유발하지 않음	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지급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파산(bankruptcy)을 유발
후순위화 영향	➤ 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트랑슈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금액이 변동(지급해야 할 금액이 감소)	➤ 발행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상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변동되지 않음(약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임)

- 상기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판단 가능

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[트랑슈(tranche)]

- 신용위험을 집중시키는 트랑슈 거래를 통해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
- 각 트랑슈에는 후순위 등급이 있어서 **발행자가 창출하는 현금흐름**은 이 순서에 따라 배분
- 트랑슈 보유자는 발행자가 **더 상위의 트랑슈에 충당할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한 경우에만** 원리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가짐



- 기초 금융상품 A는 담보 및 제3자 지급보증이 제공됨
- 기초 금융상품 A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
- 상기 구조에서 선순위 금융상품은 **기초자산이 SPPI 요건을 충족**하고, **트랑슈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**이 생기므로 **SPPI요건 충족**(B4.1.20, B4.1.21)

지분상품의 분류, 측정

지분상품의 분류, 측정

* 지분상품은 더 이상 손상대상이 아님

- ① 당기손익-공정가치(FVPL) 측정
- ②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(FVOCI) 측정

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

▪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규정

- ①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 이용 가능한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
- ② 이용 가능한 공정가치의 범위가 넓고, 그 범위 내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

▪ 다음의 경우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없음

- ① 공시가격이 있는 지분상품
- ② 금융기관이나 투자펀드가 보유하는 지분상품

기타포괄손익 선택권

▪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분류·측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에 취소 불가능

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금지

- FVOCI 측정 금융자산(지분상품) 처분시, 처분시점에 공정가치 평가 수행(3.2.12)

금융자산의 후속측정 및 처분

FVOCI 측정 채무증권의 후속측정

- 채권 A(채무증권)를 취득하여,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**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**한 경우 기중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인식 여부
 -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는 **당기손익으로 인식**(제1109호 문단 5.7.10)
 - 따라서 기중에 상각후원가 측정 방식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**이자수익을 인식**하고, 기말 평가 시 채권 A의 **공정가치 변동**으로 인한 장부금액 변동은 **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**
 - 현행 기준서(제1039호 문단 55)에서도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수익을 인식

FVOCI 측정 금융자산(채무·지분증권)의 처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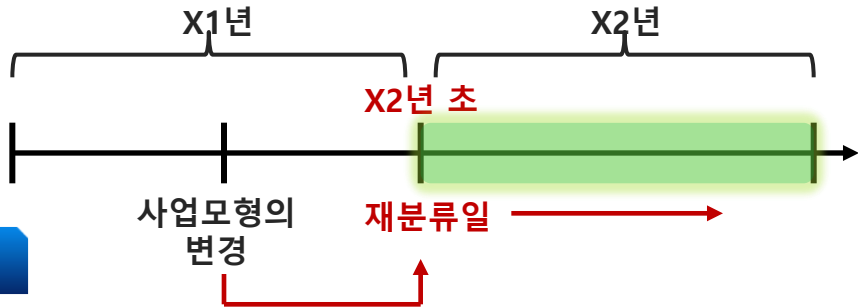
- 기업 X는 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**처분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한 후 처분 회계처리**를 해야 하는지 여부
 -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❶ 금융자산의 장부금액(제거일에 측정)과 ❷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므로 **처분 직전에 공정가치를 재측정**(제1109호 문단 3.2.12)
 - 지분상품의 경우, 제1109호에서는 (단기매매가 아닌)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표시하도록 선택(취소 불가능)할 수 있으나,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음(제1109호 B5.7.1)
 - 따라서 금융자산의 처분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 장부금액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,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처분손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**재순환 금지 취지에 부합**

금융자산의 재분류

금융자산의 재분류

* 금융부채의 재분류는 금지함

- **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** 재분류 가능
 - ① 사업모형의 변경은 흔하지 않은 것임
 - ② 회사의 영업에 유의적이어야 하고, 외부 제삼자에게 설명가능해야 함(사업의 취득, 주요사업의 처분 등)
- **재분류일:** 사업모형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보고기간의 다음 보고기간 첫 째날



재분류일 회계처리

기존 분류	재분류	재분류일 회계처리
상각후원가	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	•공정가치로 측정 •Diff{AC,FV}: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
	당기손익-공정가치	•공정가치로 측정 •Diff{AC,FV}: 당기손익 으로 인식
당기손익-공정가치	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	•새로운 장부금액: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•유효이자율: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
	상각후원가	•새로운 장부금액: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•유효이자율: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
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	당기손익-공정가치	•새로운 장부금액: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•기타포괄손익누계액: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
	상각후원가	•새로운 장부금액: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•기타포괄손익누계액: 제거하여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조정

금융부채의 분류, 측정

금융부채의 분류, 측정

- ① 상각후원가(AC) 측정
- ② 당기손익-공정가치(FVPL) 측정

* 금융부채: 자기신용위험을 제외한 규정은 IAS 39에서 IFRS 9로 그대로 이관

공정가치선택권

- ① 회계불일치의 제거, 감소
- ② 금융상품 집합의 FV기준 관리평가
- ③ 내재파생상품이 중요, 분리가 복잡

자기신용위험

금융부채 xxx(FV)*

*공정가치선택권 사용

당기손익 xxx(Δ FV)*

*자기신용위험의 변동이 아닌 FV변동

기타포괄손익 xxx(Δ FV)*

*자기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FV변동, No recycling

- *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FV변동
- 시장위험을 유발하는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변동
 - (예) 기준금리,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 가격, 환율, 가격지수 변동 이 외의 변동

IFRS 9의 분류, 측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

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른 분류·측정

- 기존 금융자산을 **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재구성**하기 위한 **프로세스, 시스템 변경** 필요
-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의 평가에 **경영진의 판단과 일관된 적용** 필요
- 일부의 경우에 **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일부 증가**될 수 있음
- **만기보유증권 분류제한 규정의 삭제**, 사업모형 변경시 재분류가 가능하나 사업모형 변경은 흔하지 않음

지분상품의 분류·측정

- 거의 대부분이 **공정가치**로 측정되어 **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증가**될 수 있음
- **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당기손익 재순환이 금지**, 보험사 등 손익에 영향
- 더 이상 **손상대상이 아니므로 실무적용 부담 완화**(시가의 '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' 검토 불필요)

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규정

- 자기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**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**하므로 이용자에게 **직관적이고 유용한 정보 제공**
- 당기손익-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**영향이 크지 않을 것**으로 예상

금융기관 등 규제산업

- 금융기관의 **손익, 자본이 변동**할 수 있으며 관련 **규제 자본에 영향**을 미칠 수 있음
- 규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**감독방향 및 규정 정비**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

【사례 1】 사업모형: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보유

기업의 활동	사업모형 충족여부
신용위험의 증가로 인해 문서화한 투자정책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도	O
예상치 못한 자본조달필요(예: 스트레스시나리오)로 유의적 금액의 빈번하지 않은 매도	O
계약상 현금흐름 전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매입	O
포트폴리오 현금흐름의 변경을 위한 파생상품계약 체결(예: 이자율스왑)	O
반복적인 사소한 금액의 매도	O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년後 자본적 지출 예상, 5년後까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/매도/재투자 전략 • 만기이전에는 사소한 금액의 매도만이 발생, 만기시점의 대가를 자본적 지출에 사용 	O
매일의 유동성 충족을 위해 유의적 금액의 빈번한 매도	X
감독당국의 요구로, 자산유동성 입증을 위해 유의적 금액의 일상적인 매도	X

【사례 2】 사업모형: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목적 보유

기업의 활동	사업모형 충족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年後 자본적 지출 예상, 장·단기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필요한 지출을 충당 • 계약상 CF수취를 위해 보유하나, 기회가 있는 경우 높은 수익률의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매도 	O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일의 유동성 충족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 • 유동성 관리원가 최소화를 위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매도이익을 관리 • 보다 높은 수익의 자산에 재투자, ALM을 위해 매도 • 과거에 이러한 전략수행을 위해 유의적 금액의 빈번한 매도활동, 향후에도 계속 예상 	O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계약부채의 결제재원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보유 • 정기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, 유의적인 매입/매도활동 	O

【사례 3】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: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(SPPI)

계약상 현금흐름 특성	SPPI 충족여부
【중도상환옵션】 • 중도상환금액: 미지급 원금, 이자,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 추가보상으로 구성	O
【연장옵션】 • 연장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지급만이 존재, 계약연장에 대한 합리적 추가보상이 포함	O
【전환옵션】 •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가능	X
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인플레이션지수와 연계(not leveraged), 원금보장	O
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상대방의 순이익이나 주가지수에 연계	X
【변동이자율】 • 화폐의 시간가치, 신용위험, 기본적인 대여활동의 위험과 원가, 이윤으로 구성	O
【변동이자율】 • 3개월 기간에 대해 3개월 LIBOR 또는 1개월 기간에 대해 1개월 LIBOR 선택가능	O
【변동이자율】 • 3개월 기간에 대해 1개월 이자율로 재설정 • 5년 만기채권, 이자율 재설정시 잔여만기가 아닌 5년 만기를 반영한 이자율로 재설정	△ ^{*1}

***1** 이자율 재설정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동일한 벤치마크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비교
 → 유의적 차이가 없으면 SPPI 충족

【사례 4】 금융자산의 재분류

공통사항

- 채권포트폴리오를 FV 5,000에 매입後, 사업모형을 변경함, 재분류일의 FV 4,900
- AC, FVOCI 측정자산: 재분류일의 손실충당금은 60(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반영, Lifetime ECL)
- 재분류일의 12-month ECL: 40

AC→FVPL

재분류일 회계처리

(차)	채권(FVPL)	4,900	(대)	채권(AC)	5,000
	손실충당금	60			
	재분류손실(P&L)*1	40			

*1 재분류일 FV(4,900) - 재분류前 BV(4,940=5,000-60) = Δ40, **당기손익으로 인식**

FVPL→AC

재분류일 회계처리

(차)	채권(AC)*1	4,900	(대)	채권(FVPL)	4,900
	손상(P&L)*2	40		손실충당금	40

*1 재분류일의 공정가치(=새로운 총장부금액)를 기초로 유효이자율 계산

*2 재분류일부터 손상규정 적용(12-month ECL), 재분류일의 신용위험을 기초로 향후 매기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여부 판단

【사례 4】 금융자산의 재분류_계속

AC→FVOCI

재분류일 회계처리

(차)	채권(FVOCI) ^{*1}	4,900	(대)	채권(AC)	5,000
	손실충당금 ^{*1}	60		기타포괄손익(누적손상) ^{*2}	60
	기타포괄손익(Δ FV) ^{*2}	100			

^{*1} 유효이자율과 ECL의 측정은 조정하지 않음. 최초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을 재분류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

^{*2} (Net) 재분류일 FV(4,900) – 재분류前 BV(4,940=5,000-60) = Δ 40, **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**

FVOCI→AC

재분류일 회계처리

(차)	채권(AC) ^{*1}	4,900	(대)	채권(FVOCI)	4,900
	채권(AC)	100		손실충당금 ^{*2}	60
				기타포괄손익(누적손실) ^{*3}	40

^{*1} 유효이자율과 ECL의 측정은 조정하지 않음.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을 재분류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

^{*2} FVOCI로 측정했을 때의 누적손상인식액(손실충당금으로 표시하지 않고 주식으로 공시했던 금액)

^{*3} 기타포괄손익누계액(누적손실)은 재분류일에 제거

【사례 4】 금융자산의 재분류_계속

FVPL→FVOCI

재분류일 회계처리

(차)	채권(FVOCI)* ¹	4,900	(대)	채권(FVPL)	4,900
	손상(P&L)* ²	40		기타포괄손익	40

*¹ 재분류일의 공정가치(=새로운 총장부금액)를 기초로 유효이자율 계산

*² 재분류일부터 손상규정 적용(12-month ECL), 재분류일의 신용위험을 기초로 향후 매기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여부 평가

FVOCI→FVPL

재분류일 회계처리

(차)	채권(FVPL)	4,900	(대)	채권(FVOCI)	4,900
	재분류손실(P&L)* ¹	40		기타포괄손익* ¹	40

*¹ 기타포괄손익누계액(누적손실)은 재분류일에 제거, 당기손실로 재순환(recycling)

재분류일 FV(4,900) - 재분류前 BV{4,940=5,000-60(누적손상액)} = Δ40, **당기손실로 인식**